

해남군, 폐교 화산남초 ‘과수실증단지’로 탈바꿈

H&B아시아·H&B팜 지원…기업 투자유치 첫 사례
사업비 부담·공유재산 사용료 징수 등 일석이조 효과

해남군이 폐교된 초등학교 부지를 과수실증단지로 조성해 농업육성과 기업 투자유치의 ‘일석이조’ 성과를 냈다. 8일 해남군에 따르면 화산면 소재 화산남초등학교 부지에 지난 5월부터 과수실증단지 조성 공사가 추진 중이다. 해남군은 지난해 11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H&B아시아·H&B팜과 화산남초에 기후변화대응 과수실증단지를 조성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전진기지로 활용하기로 했다. H&B아시아는 엔비사과의 아시아 독점권을 갖고 있는 유통전문 법인으로, 직영 농장인 H&B팜과 H&B남미지사 등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2033년까지 215억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통해 신기후 체계에 선제 대응하는 고부가가치 과수생산·발굴 등을 목표로 한 ‘해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과수실증단지는 2만여㎡와 건물 1천585㎡ 규모로 과수실증센터와 실증재배하우스가 들어설 예정으로, 블루베리 등 해남의 환경에 적합한 품종을 발굴해 시험재배 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H&B팜의 본사가 해남으로 이전했으며, 올 가을 격리재배되고 있는 과수 신품종을 실증단지로 이식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과수실증단지 조성은 폐교



해남군이 폐교된 화산면 소재 화산남초등학교 부지에 지난 5월부터 과수실증단지 조성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공사 중인 실증재배하우스(왼쪽)와 블루베리 신품종 격리재배 시설 모습. <해남군 제공>

를 활용한 기업 투자유치의 첫 사례로서 초기 리모델링·운영을 위한 투자 자금 확보 등의 어려움을 기업유치를 통



해 해결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건축 리모델링과 각종 공사에 투입되

는 사업비는 전액 기업에서 부담하며, 기업의 공유재산 사용료까지 징수하게 되면서 폐교 부지 활용은 물론 비용절

감의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게 됐다. 이번에 조성하는 과수실증단지는 해남군이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의 선도 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남군은 미래성장동력을 육성하는 2030프로젝트를 통해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전남도 과수연구소, 해남군 농업연구단지를 연계한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거점을 조성할 방침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대한민국 농어업수도, 해남”의 비전을 향한 속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과수유통, 청년 농업인·귀농인구 유치 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잠자는 폐교를 활용한 기업의 투자유치 모델 제시’ 사례는 2024년 전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섬 길 하나로”…한국섬진흥원, 섬 순례길 ‘순항’

웅진 자월도 주민 커뮤니티 활동…트레킹 코스 정비

전국의 흩어진 섬 둘레길을 하나로 모으는 ‘한국 섬 순례길’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8일 한국섬진흥원(KIDI)에 따르면 최근 인천 웅진 자월도에서 열린 섬 지역 특성화 사업 ‘주민 커뮤니티 활동’이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번 활동은 ‘푸른섬살, 청년과 주민이 함께하는 커뮤니티’라는 주제로 자월2리(동촌마을) 주민들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기획됐다. <사진> 특히 남치는 의욕과 특목 뛰는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청년 활동가를 별도로 모집했다. 그 결과 섬 주민과 청년이 함께 ‘미리 걷는 자월도’ 콘셉트로 섬 쓰담견기와 동촌마을-목섬으로 이어지는 1.4km 구간 트레킹 코스를 정비했다. 이 코스와 ‘한국 섬 순례길’이 연결될 경우, 기존 4.5km에서 6.6km로 늘어난다.



목섬과 동촌마을을 잇는 트레킹 코스를 1.4km 확장할 시, 동촌마을과 선착장을 연결하는 700m 구간도 이어진다. 선착장까지 길이 연결돼 하나의 길(‘한국 섬 순례길’)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한국섬진흥원과 웅진군은 해당 트레킹 코스 고도화를 위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칠 예정이다. /목포=정해선 기자

또한 섬 방문객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섬원 누리집 ‘한국 섬 순례길’ 페이지에 반영, 오픈 소스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다. 김광배 자월2리 이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마을에 방문해 푸른 섬 만들기 위해 노력해줘 감사하다”며 “섬 특성화 사업을 성공 추진해 활력 넘치는 자월도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오동호 한국섬진흥원장은 “국사봉을 중심으로 이뤄진 아름다운 자월도 섬 길에 이번 섬 특성화 사업을 통해 더 확대됐다”며 “자월도를 비롯한 한국의 섬 순례길을 하나로 모으고, 널리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섬진흥원은 EBS 한국기행 특집 ‘한국의 섬순례길’을 제작, 전국의 흩어진 섬 둘레길을 하나로 모아 아름다운 국내 섬 길을 오는 9월 방영해 전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목포=정해선 기자



신안군이 최근 신안갯벌에서 광주·전남지역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태피크닉을 개최했다. <신안군 제공>

신안군, 글로벌 신안갯벌 생태피크닉 추진

광주·전남 외국인 초·중학생 대상

신안군은 “최근 신안갯벌의 세계화를 위해 광주·전남지역 외국인 학생들과 생태피크닉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생태피크닉은 광주·전남지역의 외국인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세계자연유산인 신안갯벌에 대한 교육과

현장학습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신안군 파프리카 탐방과 갯벌을 거닐며 이론 교육을 추진했다. 또한 둔장체험마을에서 갯벌의 저서동물들을 직접 잡아보는 체험을 통해 세계유산 갯벌의 보전과 활용에 대해 알아봤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기초교육을 통

해 초·중학생부터 세계자연유산의 중요성과 보전관리에 대한 탄탄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지속 교육을 통해 관련 학생 뿐 아니라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생태피크닉은 국가유산청의 공모사업인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 중 하나로 신안군은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공모에 선정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안=양훈 기자

원전 소재 5개 시·군의회, 원자력발전 지원금 개선방안 논의

영광군의회 회의실서 과세 개편 등 결의문 채택

영광군의회는 8일 “지난 6일 의원간담 회의실에서 원전 소재 5개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동발전협의회는 원전이 소재한 5개 시·군(경주시, 기장군, 영광군, 울주군, 울진군) 의회 의장과 원전특위위원장으로 구성, 매년 상·하반기 정기회의를 각 시·군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도로 위험한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과 개

선 방안을 논의했다. 기장군의회에서 제안한 원전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표준을 ‘발전량’ 기준이 아닌 ‘발전용량’ 기준으로 전환하고 ‘핵연료세’를 ‘지방세’로 신설해 원전소재 지자체의 자주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세 개편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임영민 영광군의회 의원(대전특별위원장)이 제안한 현행 킬로와트시(kW

h)당 0.25원인 주변 지역 지원금 단가를 0.5원으로 인상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울진군의회의 ‘원전 주변 지역자원사업 심의지역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위원회 성격을 ‘협의’에서 ‘심의’로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 개정을 요구하는 제도 개선(안)을 채택했다.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은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 발전협의회가 원전 관련 개선 사항을 건의해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하는 의회가 되자”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영암 고향사랑기금 활용 ‘소아청소년과’ 개설

19일부터 영암군보건소·삼호보건지소서 진료 예정

영암군이 전국 최초로 고향사랑기금을 통한 소아청소년과를 신설했다. 8일 영암군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영암군보건소와 삼호보건지소에서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시작한다. 최근까지 영암군 내 0-18세 소아청소년은 6천23명이었으나 소아청소년 전문의와 병원은 없었다. 소아청소년이 전문 진료를 받기 위

해서는 광주 또는 목포로 나가야만 하는 실정이었다. 영암군은 소아청소년과 신설을 위해 고향사랑기금사업으로 임상 경험이 풍부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과 간호사 1명을 채용했다. 이들은 앞으로 영암 소아청소년의 마을 주치의 역할을 담당하고, 영·유아 건강 검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영암군보건소는 관련 진료 시설·장

비 등을 고향사랑기금에서 새로 구입해 차질없는 소아청소년과 운영을 위한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소아청소년과는 화·목요일 영암군보건소, 월·수·금요일 삼호보건지소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소아청소년과 신설로 부모와 아이에게 안심할 수 있는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전국의 고향사랑기부자들에게 감사하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등 다양한 보건정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영암=나동호 기자

강진군, 대구면 경로식당 ‘새단장’

주방 노후화 천장·벽체 등 교체

강진군은 “최근 대구면 경로식당을 리모델링 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 대구복지회관 내 위치한 대구면 경로식당은 식당 건물이 노후돼 지붕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식탁·의자, 비품 등이 낡아 전면 교체가 필요했다. 특히 좁은 주방에는 식품 보관창고가 없어 위생상의 문제가 우려됐고, 화단은 녹이 슬고 접화가 되지 않아 안전상의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강진군은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해 지난 달 22일 완공했다. 비위생적이었던 주방 바닥과 천장·벽체를 새로운 자재로 교체하고 여러 개의 작은 공간으로 나누어 사용하기

불편했던 주방의 벽체를 없애 공간을 늘렸다. 이 밖에도 주방 비품과 식탁·테이블 등을 교체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민선 8기 어르

신 복지의 주안점은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복지회관 내에는 경로식당과 함께 최근 빨래방과 사우나도 시범 설치 운영 돼 어르신들의 청결과 위생 지원에 도움이 되고 있다. /강진=정영록 기자



무안군, 재가 의료급여사업 본격 추진

2년간 월 71만원 지원 등…의료급여 재정 누수 방지

무안군은 8일 “재가 의료급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무안군보건소·사회복지협의회·일로하나로마트·와이식자재마트(무안읍) 등 4개소와 업무협약

을 맺고 진행된다. 협약 기관들은 장기입원 후 퇴원한 수급자가 거주지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식사 등을 제공하고 대상자의 개별 특성과 상황에 따른 서

비스를 지원한다. 무안군은 대상자에게 1인 돌봄계획(케어플랜)에 따른 최대 2년간 월 71만원 상당의 필수급여와 냉난방용품, 주거개선, 복지용품 등 선택급여를 지원해 건강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신청은 의료급여수급자 본인이나 가족이 무안군 사회복지과로 신청하면 되고 의료급여사례관리사를 파견해 직접발굴·선정해 나간다. /무안=김상호 기자